

日本の 県單位 予防医学協會로의 展開와 寄生虫 予防運動 〈完〉

韓 仁 洙

예방의학협회의 설립과 조직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한 번 조직문제로 좁혀서 보면 기생충예방협회가 법인으로 구성된 곳에서는 동일한 간부나 동일한 사무국장으로 ××縣예방의학협회를 만들때 법인(法人)으로(재단법인이면 좋겠다)한다.

간부나 사무국장을 동일인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일을 시작할때 뿐아니라 앞으로도 스무스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생충예방회가 없는 縣에서는 처음부터 동일단체로 ××縣 예방의학협회로 만들어서 검사실(檢室査)은 부속위생검사 쉐타로 해서 그중에 寄生虫部가 日本寄生虫予防會의 支部가 되어 그지역에서

활약하도록 한다.

이것을 逆으로 말한다면 현재의 기생충 예방사업을 영속적으로 완수시켜 나갈 경제적·내지는 정신적 희망을 부여시킨다.

기생충예방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府縣에 대하여 單一테마의 기생충예방회를 만들게 함은 현재로서 또 장래로 보아서도 무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미 행정당국은 寄生虫 예방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제검사도 행하게 한다면 이것은 환영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생충 예방을 시킨다. 예방의학협회의 일 가운데 기생충예방은 더욱 경제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비중이 큰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결국 금후는 기생충예방회의 조직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예방의학협회를 나란히 끌고간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同一化시켜 간다는(어느때인가는 기생충예방회 간판을 내리게 된다)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기생충 예방회만은 일본기생충학회와는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는데 두개의 간판을 건다는 문제에 대하여 기생충학자들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찬성해 주리라고 믿고 싶다. 간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벌레를 잡는일에 더욱 부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벌레를 잡는일을 이 예방의학협회의 추진으로 잘 되어간다면 틀림없이 환영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거기에 기생충학자라 해도 사회적 입장에서 기생충구제에 힘을 기울여 주는 학자와 기생충 그 자체를 學問의次元에서 깊숙히 연구하는 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가 예방회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는 것이다.

하여간 사회의 진보가 너무 빨라서 조직이나 운동도 이것에 맞추어 다소의 方法을 변화시켜서 적응해

주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다. 결핵예방회가 폐암에 대하여 손을 뻗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회와 縣의 위생부국이 中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교육위원회와 國保(국민보건연합조합) 관계자나 학회대표는 빼놓을 수가 없다. 이 5명의 理事이외에 市町村 會長이나 健保連이라든가 農協, 부인단체, 보도관계 등의 대표자도 빼놓을 수 없다.

사무국장은(理事가 되어야 한다)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모처럼 모아놓고 관료화시킨다는 지 선장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게 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일을 精力的으로 활발하게 하여 公共的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信賞必罰, 직원의 潛在能力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 點 民間회사의 경영법이나 人間關係(Human relation) 對策이 적극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일할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에게 일꾼이 더붙이게 된다면 일은 80% 성공인 셈이다. 이사회도 너무 잔일에까지 규제하지 않는 편이 낫고 다만 잘못된 方向만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만을 한다.

그 다음 協會의 장비(검사실이나 기동력)는 될 수 있는대로 장소가 넓어야 되겠다.

일본기생충협회는 기생충만의 검사실 규격을 A,B,C의 3종의 초안을 제출했는데 업무량이 많을수록 넓어야 한다.

자동차 차고도 앞으로 10 여대 이상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좋겠다. 돈이 좀 드는 일인데 처음부터 행정당국에 여러점에서 신세를 져야 되겠다고 보여지는데 方法은 公共空地의 매여라든가 낡은 정부 건물을 사용허가를 얻는다해서 이제부터 어떠한 행정적 프라스가 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임으로 이런 일을 縣當局이 알게 되면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업무의 위탁등을 縣이 주동해서 이 단체가 육성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차입금의 알선등도 현당국의 협력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本部의 役割은 포병의 지원자격과 같은 全國의 PR, 기부금의 모금, 정부나 의회와의 陳情作戰, 기술자나 組織者의 연구훈련, 학회와의 교섭, 관계단체등과의 협력, 회의개최등의 여러가지가 있다.

또 本部의 지금의 형태는 日本寄生虫 예방회 그대로이고 그中에서 수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全國의 예방의학협회의 주도권을 잡고 간다.

지금의 간부의 若干은 다른 공중보건분야에서 보충해가는 방법도 있겠다. 여기에 政治나 行政, 學會의 거물을 맞아들이면 좋겠다. 그다음 下部구조는 縣이 하나의 쉐타 -로서는 미흡한 경우도 있으니 경우에 따라서 적당히 지역에 따라서 分析쉐타-를 두면 되겠다. 자동차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2, 3 십리 정도(10km 内外)를 업무의 單位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리고 직원은 保健所나 縣 등에서 적당한 사람이 참가하든가 의사회관계, 市町村 등에서 참가해도 좋겠다. 단 현역이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責任있는 직위는 말이다.

平理事程度라면 좋겠지만

業務遂行方法 :

이제부터 寄生虫 예방회, 또는 예방의학협회에서는 일이 차츰 多方面으로 되어가고 있다. 하는데서 「무엇이고 닥치는대로 한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염려가 있는데 寄生虫 한가지만이라면 확실히 하나 뿐이기에 신장될 수 있었지만 일의 테마가 많아지다 보면 이것저것에 고루 신경을 써야 함으로 어느 것이든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어느일에서 먼저 손을 댈 것인가를 정하여 갈 것이다. 결국 과정이 重要한 것이다. 이 결정은 자기네의 조건(자

금 검사실 직원, 조직자) 등과 자기 이외의 조건(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이 긴급한가)의 조화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이것 저것을 헝크려 놓기만 하면 協會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지역 주민이나 行政당국에 폐를 끼치게 되고마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責任者를 정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이다.

반드시 책임자를 두고 예산을 설정해서 시킨다. 일의 수행방법이나 기획이나 추진은 그 책임자가 집행하는 조직체제이어야 한다.

理事들은 너무 작다란 일까지 간섭해서 안되고 대국적인 문제는 상호협의 검토해서 필요가 있다면 助言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책임자의 창의(Originality)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요코하마(横浜)나 도쿄(東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오직 이사나 사무국장이 중요한것은 責任者를 끊임없이 앞을 내다 볼수 있게 격려하고 조언을 해주고 일의 방향이나 중요성을 설명해 두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기업체의 경영방법을 모방해서 언젠고 그 기업의 현실과 장래를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것들이 의학행정이나 예방의학 운동에는 너무 적다고 본다

赤字가 생기면 관계당국에 청원한다든가 기부를 받는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이것들이 좀 잘못된것이 아니겠는가?

미체로 厚生省(保社部) 관계 民間단체에는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대단히 높다. 때문에 자기가 어렵게 되면 「사회나 정부에서 응원해 주는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앞서 일의 추진 方法이나 방향의 검토 등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獨立이 되지 못한다.

언젠고 관계당국의 짐이되고 있으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일을 착수한 이상 자기들의 발로 선다. 발로 서는 애를 써야 한다.

여러가지 창의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努力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운동중에서 이사측에서 직원들의 「人間性」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간다면 일이 만네리즘에 빠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完)

(필자=기협 검사부장)

